

우육일일시장뉴스 (2026.10.19)

(주)로드프리미엄 | 대상: 중국 / 일본 / 미국 / 호주 / 뉴질랜드 / 남미(브라질·우루과이·파라과이·아르헨티나)

오늘의 핵심

- 1. 미국 Choice 컷아웃은 10/16 US\$372.31/cwt(-1.67)로 이틀째 내렸고, Select는 353.05달러(+0.43)입니다. 12월물 생우는 228.35달러(+1.10)로 사흘째 올랐고, 텍사스 현물은 생체 228달러에 일부 거래됐습니다.
- 2. 10/16 미국 수입우 시장에서 호주·뉴질랜드산 90CL 카우는 FOB US\$335~340/cwt, 95CL 불은 350~364달러로 대체로 소폭 내렸습니다. 국내 가격 약세와 수요 부진이 이유입니다.
- 3. 브라질의 10월 첫 7영업일 소고기 수출은 하루 평균 8,760톤으로 전년보다 39.9% 줄었지만, 톤당 단가는 US\$6,163으로 11.3% 올랐습니다. 중국의 55% 추가관세가 본격 반영되고 있습니다.
- 4. 중국 소고기 도매가는 10/16 73.61위안/kg(+0.7%)으로 사흘째 올랐고, 10/9~15 주간 평균은 72.62위안으로 전년보다 10% 높습니다. 우루과이 거세우는 US\$5.80~5.95/kg, 일부 6.00달러로 강세입니다.
- 5. 미국 현물 생우는 10/16 남부 228달러, 북부 생체 222~227달러에 거래돼 전주보다 강했고, 12월물 생우는 주간 1.30달러 올라 8/7 이후 최고로 한 주를 마쳤습니다. 패커 마진은 두당 70.90달러로 하루 새 약 29달러 줄었습니다.

국가별 오퍼가격 참고 지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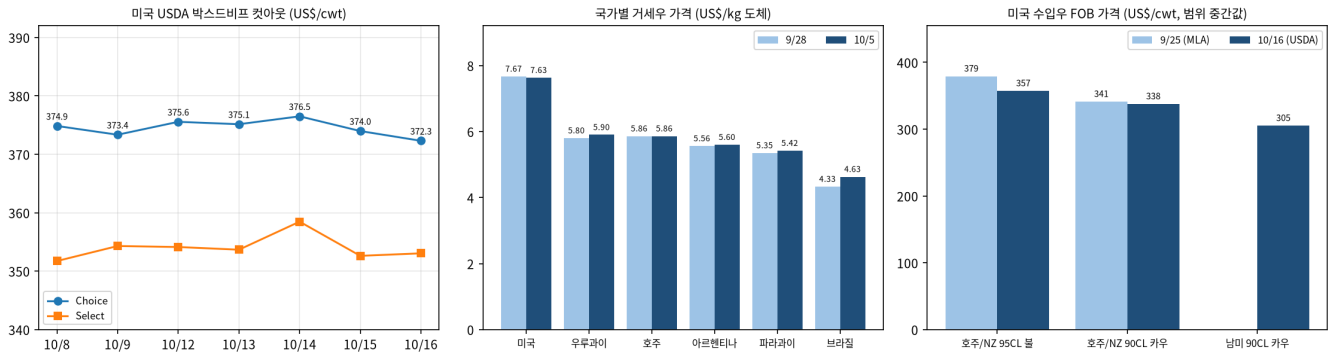
실제 한국향 오퍼가격은 비공개이므로, 아래는 미국 수입우 FOB/CIF, USDA 컷아웃, 산지 경매가, 수출 단가 등 공개 참고 지표입니다.

국가	지표	최근 가격	변동	출처
미국	USDA Choice 600-900 컷아웃 (10/16)	US\$372.31/cwt	전일 -1.67	USDA AMS
미국	USDA Select 600-900 컷아웃 (10/16)	US\$353.05/cwt	전일 +0.43	USDA AMS
미국	Choice 등심(Rib)/목심(Chuck) 프라이멀 (10/16)	US\$673.16 / 337.76/cwt	10/15 676.12 / 337.40	USDA AMS
미국	CME 12월물 생우 (10/16 종가)	US\$228.35/cwt	+1.10, 주간 +1.30 (8/7 이후 최고)	Agriculture.com(Reuters)
미국	패커 마진 추정 (10/16)	두당 US\$70.90	전일 99.65, 1주 전 72.55	Agriculture.com(Reuters)
미국	생우 현물 (10/16)	생체 남부 US\$228, 북부 222~227/cwt	전주 대비 강세	Barchart(Yahoo Finance)
미국	Fed Cattle Exchange 경매 (10/16)	US\$228~228.50/cwt	2,596두 중 571두 낙찰	Barchart(Yahoo Finance)
미국	CME 비육우 지수 (10/15)	US\$343.54/cwt	+0.90	Barchart(Yahoo Finance)
미국	USDA ERS 4분기 비육 거세우 가격 전망 (10/16)	US\$225/cwt	2026년 평균 237.56	USDA ERS
중국	소고기 도매 평균 (10/16)	73.61 CNY/kg	전일 +0.7%	NetEase(농업농촌부)
중국	소고기 도매 주간 평균 (10/9~15)	72.62 CNY/kg	전주 -0.3%, 전년 +10.0%	Foodmate(농업농촌부 주간)
호주/NZ	미국 수입 90CL 카우 FOB (10/16)	US\$335~340/cwt	10/9 335~339, 대체로 소폭 약세	USDA AMS 수입우 거래

국가	지표	최근 가격	변동	출처
호주/NZ	미국 수입 95CL 볼 FOB (10/16)	US\$350~364/cwt	10/9 355~360	USDA AMS 수입우 거래
호주/NZ	미국 수입 85CL 트림 FOB (10/16)	US\$305~307/cwt	-	USDA AMS 수입우 거래
호주	미국 수입 90CL 카우 CIF (9/25, MLA 최신 공개분)	US\$320~325/cwt	전주 +5, 전년 -13	MLA 주간 리포트
남미	미국 수입 90CL 카우 (10/16)	US\$298~312/cwt	10/9 303~308	USDA AMS 수입우 거래
호주	9월 소고기 수출 (전체 / 한국향)	132,146톤 / 17,927톤	전년 -5% / -16%	Farmonline
호주	2026년 소고기 생산 / 수출 전망 (MLA, 10/15)	300만 톤 이상 / 약 240만 톤	생산 사상 최고	MLA
호주	다윈 수출용 비육 거세우 (10월 중순)	약 450 A¢/kg 생체	일부 460	Beef Central
호주	재임식 거세우 지표 (10/16 주간)	548 A¢/kg 생체	+7%	MLA 주간 현황
호주	비육용 암소 지표 (10/16 주간)	467 A¢/kg 생체	+8.5%	MLA 주간 현황
뉴질랜드	P2 스티어 스케줄 북섬 (10/12)	985 NZ¢/kg	4주 전 동일, 1년 전 890	interest.co.nz
뉴질랜드	P2 스티어 스케줄 남섬 (10/12)	971 NZ¢/kg	4주 전 965, 1년 전 883	interest.co.nz
브라질	Cepea 비육우 (10/15)	R\$380.20/아로바	전일 +0.21%, 10월 누적 +4.36%	Brasil61(Cepea)
브라질	대중국 수출용 비육우 (Boi-China, SP) (10/13)	R\$385.00/아로바	일반 대비 +R\$5	Compre Rural
브라질	10월 1~7영업일 소고기 수출 단가	US\$6,163/톤	전년 10월 대비 +11.3%	Notícias Agrícolas(Secex)
브라질	거세우 평균 (10/5)	US\$4.63/kg	+6.9%	World Beef Report
우루과이	거세우 (10/16)	US\$5.80~5.95/kg, 일부 6.00	강세, 암소 5.50~5.65	El Observador
우루과이	소고기 수출 단가 (최근 30일 / 최근 1주)	US\$5,943 / 5,700/톤	6,000달러 안팎에서 안정	El Observador
아르헨티나	거세우 (10/5)	US\$5.60/kg	+0.7%	World Beef Report
파라과이	거세우 (10/5)	US\$5.42/kg	+1.3%	World Beef Report
미국→한국	8월 대한민국 수출 단가 (US\$2.01억 / 19,195톤)	약 US\$10.47/kg	물량 +14%, 금액 +20%	Provisioner(USMEF)

국가별 가격 변화 그래프

우육 국가별 가격 변화



자료: USDA AMS, World Beef Report, MLA, USDA AMS 수입우 거래 (수입우는 FOB 범위 중간값, 남미는 9/25 비교값 없음, 국가별 거세우는 10/5가 최신)

국가별 주요 뉴스

중국

- 농업농촌부 주간(10/9~15) 소고기 도매 평균은 72.62위안/kg으로 전주보다 0.3% 내렸지만 전년보다 10.0% 높습니다. [Foodmate\(농업농촌부 주간\)](#)
- USDA는 2026년 세계 소고기 생산이 3% 넘게 줄어 6,022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[Logos Press](#)
- 10/16 소고기 도매 평균은 73.61위안/kg으로 0.7% 올라 사흘 연속 상승했습니다. 양고기는 67.82위안(+0.2%)입니다. [NetEase\(농업농촌부\)](#)
- 브라질산은 9/29 연간 쿼터 110만 톤을 채워 10/1부터 55% 추가관세(일반관세 포함 67%)가 붙습니다. 1~8월 브라질의 대중국 수출은 약 87.3만 톤으로 8% 줄었습니다. ([Datamar News](#))
- 호주산도 6월부터 쿼터 초과분에 55% 관세가 적용돼 9월 대중국 수출이 7,778톤(-62%)에 그쳤습니다. ([Farmonline](#))
- USDA FAS는 2027년 중국 소고기 수입을 365만 톤으로 전망했습니다. ([USDA FAS](#))

일본

- 호주산 9월 대일본 수출은 27,107톤으로 19% 늘었고, 올해 누적 점유율은 16.8%입니다. ([Farmonline](#))
- 미국산 8월 대일본 수출은 금액 1.4억 달러(+2%), 물량 -13%였습니다. ([Oklahoma Farm Report](#))
- 아르헨티나산 소고기의 일본 수출 위생요건이 합의돼, 남미산 경쟁이 커질 전망입니다. ([Buenos Aires Times](#))
- FAS는 2027년 일본 소고기 수입을 70.5만 톤으로 전망했습니다. ([USDA FAS](#))
- 일본에서는 엔저와 미국 가뭄으로 수입 소고기·돼지고기 가격이 올라 닭고기 소비가 늘고 있습니다. 최근 5년간 소고기 소비는 11% 줄고 닭고기는 6% 늘었으며, 육류 소비의 47%를 수입에 의존합니다. [아시아경제](#)

미국

- USDA ERS는 10/16 전망에서 2026년 소고기 생산을 248억 파운드, 2027년 246.8억 파운드로 줄여 잡았습니다. 소고기 수입은 2026년 63.5억 파운드, 2027년 61.8억 파운드로 내다봤고, 4분기 비육 거세우 가격은 225달러/cwt로 전망했습니다. [USDA ERS](#)
- 10/16 현물 생우는 남부 228달러, 북부 생체 222~227달러·도체 350~355달러로 전주보다 강했습니다. 12월물 생우는 228.35달러(+1.10)로 8/7 이후 최고였고 주간 1.30달러 올랐습니다. 패커 마진은 두당 70.90달러(전일 99.65)로 줄었습니다. ([Agriculture.com\(Reuters\)](#), [Barchart\(Yahoo Finance\)](#))
- 10/16 Choice 컷아웃은 372.31달러(-1.67)로 이틀째 내렸고, Select는 353.05달러(+0.43)로 소폭 올랐습니다. [US DA AMS](#)

4. 지난주 종합 컷아웃은 375.85달러로 1주 전보다 4.16달러 내렸고, 패커 마진은 여전히 플러스입니다. ([Meatingplace](#))
5. 한시적 ‘저가 소고기’ TRQ(90일간 30만 톤)는 첫 달 10만 톤 중 37,486톤만 들어와, 실제 추가 수입은 8,054~21,936 톤으로 추정됩니다. 해당 쿼터의 주요 공급국은 브라질·파라과이입니다. ([Farm Policy News](#))
6. 롤린스 농무장관은 수입 확대가 소비자 가격 부담을 덜고 있다고 밝혔지만, 구체적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(10/13). ([Brownfield](#))
7. 10/16 USDA 수입우 거래에서 호주·뉴질랜드산 90CL 카우는 335~340달러, 95CL 불은 350~364달러, 85CL 트림은 305~307달러였습니다. 거래는 한산했고, 수요 부진과 미국 국내 가격 약세로 대체로 소폭 내렸습니다. 남미산 90CL은 298~312달러입니다. [USDA AMS 수입우 거래](#)
8. 9월 미국 소비자물가에서 다짐육 가격은 파운드당 7.062달러로 전월보다 1.3% 내려 2024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지만, 전년보다는 6.3% 높습니다. ([Bloomberg](#))

호주

1. 9월 소고기 수출은 132,146톤으로 전년보다 5% 줄었지만 5년 평균보다 32% 많습니다. 미국향 43,463톤(+4%)이 3분의 1가량을 차지했고, 한국향은 6월 정점(32,599톤)보다 약 45% 적은 17,927톤입니다. ([Farmonline](#))
2. 중국의 쿼터 초과 관세를 피하려고 물량을 1월 통관용으로 쌓아 두면서 브리즈번 등 냉동창고가 가득 찼고, 최소 2~3곳의 수출 도축장이 생산일을 잃었습니다. ([Beef Central](#))
3. 10/16 주간 호주 소 지표는 모두 올랐습니다. 재입식 거세우는 548¢/kg(+7%), 비육용 암소는 467¢/kg(+8.5%)이고, 소 출하는 54,403두로 7% 줄었습니다. [MLA 주간 상황](#)
4. 9월 생우 수출은 46,765두로 8월(71,711두)보다 약 35% 줄었지만, 다윈 비육 거세우 가격은 450¢/kg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([Beef Central](#))
5. 호주 야당 연합과 전국농민연맹(NFF)은 소·양고기의 EU 시장 접근이 너무 적다며 100억 달러 규모의 호주-EU 무역협정에 반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[Ground News](#)
6. FAS는 2027년 호주 소고기 생산을 242만 톤, 수출을 224만 톤으로 전망했습니다. ([USDA FAS](#))
7. MLA는 2026년 호주 소고기 생산이 사상 처음 300만 톤을 넘고 수출은 약 240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성우 도축은 2026년 960만 두에서 2027년 920만 두로, 사육 두수는 2026년 3,080만 두에서 2027년 3,010만 두로 줄어든 전망입니다. [MLA](#)

뉴질랜드

1. P2 스티어 스케줄은 북섬 985, 남섬 971 NZ¢/kg로 1년 전보다 각각 11%, 10% 높습니다. ([interest.co.nz](#))
2. 미국 수입 시장의 가공용 원료(90CL) 가격 하락은 뉴질랜드산 소고기 수출가에도 부담입니다. ([USDA AMS 수입우 거래](#))

남미 (브라질·우루과이·파라과이·아르헨티나)

1. 브라질 비육우 아로바 가격이 R\$380에 이르러 1994년 헤알화 도입 이후 명목 기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. 출하 가능한 소가 부족한 것이 원인입니다. [SpaceMoney](#)
2. 우루과이 거세우는 US\$5.80~5.95/kg, 특급 물량은 6.00달러까지 거래됐고 암소는 5.50~5.65달러입니다. 수출 단가는 최근 30일 톤당 5,943달러, 최근 1주 5,700달러로 6,000달러 안팎에서 안정됐습니다. 도축도 전주 3만 4천 두를 넘겨 회복세입니다. ([El Observador](#), [El País Rurales](#))
3. 브라질 소고기 업계는 EU 수출 재개 일정이 아직 없는 가운데, 이달 중 중국 쿼터가 새로 열리면(“쿼터 전환”) 대중국 수출이 다시 늘 것으로 기대하며 시장 다변화를 논의하고 있습니다. [A Gazeta](#)
4. 브라질의 10월 첫 7영업일 소고기 수출은 61,320톤, 하루 평균 8,760톤(-39.9%)이었고, 톤당 단가는 US\$6,163(+11.3%)입니다. 닭고기(+28.1%)와 돼지고기(+20.5%)는 늘었습니다. ([Notícias Agrícolas\(Secex\)](#))
5. 브라질 비육우는 Cepea 기준 10/13 R\$378.00/아로바로 9/30보다 R\$13.70 올랐고, 대중국 수출용(Boi-China)은 R\$385입니다. 도축 일정이 5~6영업일로 짧아 일부 지역에서는 R\$390 거래도 시도되고 있습니다. [Compre Rural](#)
6. 1~8월 브라질의 미국향(24.1만 톤, +37%)·칠레향(10.6만 톤, +32.5%)·러시아향(8.3만 톤, +38%) 증가가 중국향 감소를 메웠습니다. ([Datamar News](#))
7. 파라과이는 도축이 약 20% 줄었지만 수출 가격이 20% 올라 이를 메우고 있습니다. ([La Tribuna](#))

한국 수입업체 관점 시사점

- 미국 수입 시장의 가공육 원료(90CL·95CL) 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있어, 호주·뉴질랜드산 가공육 원료의 한국향 오퍼 인하를 요구할 근거가 됩니다.
- 호주산 한국향 수출은 세이프가드 관세 24%로 6월 정점보다 45% 줄었습니다. 중국향 물량도 1월 통관을 기다리며 쌓여 있어, 1월 선적·통관분은 공급이 몰려 가격 협상 여지가 커질 수 있습니다.
- 미국산 Choice 컷아웃은 372달러대로 이틀째 내렸지만 선물은 10주 최고권으로 올라 방향성이 엇갈리고, 미국 생산은 줄고 있어, 구이용 부위는 큰 폭 하락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. 4분기 말까지 나눠 매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 주말 현물 생우가 228달러로 강해 다음 주에도 미국산 원가 부담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
- 브라질산은 중국 관세로 수출 물량이 40% 가까이 줄었지만 단가는 올랐고, 산지가는 R\$380으로 명목 사상 최고입니다. 우루과이 거세우도 6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. 남미산 오퍼는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우루과이·파라과이산과 함께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.
- 호주 산지 소 지표가 한 주 새 7~8% 오르고 비로 재입식 수요가 살아나, 호주산 오퍼가 다시 오를 수 있습니다. 미국 수입 원료 가격이 약세일 때 4분기~1분기 물량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.

한 줄 요약

미국 생우 강세와 USDA의 생산 감소 전망, 브라질·우루과이 산지가 강세로 소고기 원가 부담은 이어지지만, 수입 가공육 원료(90CL)는 소폭 약세여서 한국 수입업체는 호주산 1월 선적분 위주로 협상력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